

◆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 St. Francis Fraternity at Anaheim ◆



평화의 도구

(제 163 호)

07년 3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율리아),sfo (714)572-3035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이 세홍(바오로),sfo (562)860-6930
 *시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229-0914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율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yw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655@yahoo.co.kr

형제회 소식

■ 가톨릭 워커 봉사

지난 3월 4(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함께 음식을 봉사하였습니다.

■ 양성 부장 교체

그동안 양성 부장을 담당하던 박 영철(요한) 형제께서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07년 3월 4일부로 양성 부장직을 사임 하였습니다. 남은 잔여 임기를 이 세홍(바오로) 형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형제회 15년사 원고 모집

오는 08년 오렌지카운티 형제회 설립 15주년이 됩니다. 형제회 15년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하여 15년사 편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찬에 도움이 될만한 회원님들의 원고와 글을 기다립니다. 내용은 형제회 소감, 생활, 수필, 시, 조언 등 자유 형식이며 오는 4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출판 경비 충당을 위하여 기부금이나 광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편찬 위원회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제회 점심

지난 2월 월례회 점심제공은 김영숙(테레사) 자매가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 오신 회원 (2월)

새로오신 분. 환영합니다. 2월 25일(일)
 조 성운(안젤라), 안 운선(이멜다)
 정 치영(요한보스코)

행복의 비결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하나가 필요할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되면 그 소중한마저 잃는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늪음이 아니라 녹스는 삶이며,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원 소개- 5 번째】

나는 누구 일까요 ?

나는 50대 초반 입니다. 저는 좀더 성숙한 삶을 살고 싶었고 친구인 테레사 자매 와 둘째 언니가 프란치스칸으로써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늘 옆에서 지켜 보면서 2005년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격은 외향적인 모습이면서 내성적인 면이 있다. 무엇이든 다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싫은 것,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매우 솔직한 편이다. 그래서 때론 상처를 받는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소화하려고 한다. 특기는 노래이고 장구, 춤을 좋아한다. 취미는 음악 감상, 여행.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성인의 순명하는 모습과 세속적이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형제회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형제 자매님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형제애를 나누는 모습과 프란치스칸의 단순하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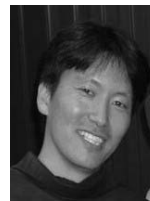
형제회에 대한 조언은 형제회 시간을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다. 찬양시간이 좀 긴 것 같다. 2-3곡이 지나면 기가 빠지는 듯 하여 열의가 없어지는 것 같다. 공지 사항 내용은 좀 간결하게 하고 핵심되는 내용만 잘 쉼표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선교】

하루도 잠잠 할 날이 없다..

T 평화와 선

김 용철(도미니꼬) 신부



내가 탄 비행기는 부산 태종대를 빙빙 돌고 있다. 이러다가 다시 러시아로 가는 것 아니야.

어제 3월 12일 원래 서울에 도착해야 하는데, 12일 대한항공이 서울을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와서 강풍으로 인해 러시아 하늘만 빙빙 돌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이미 출국 수속을 다 마치고 기다리던 우리는 그만 다시 러시아 땅(출국심사대를 거쳐서)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래서 현지의 대한항공 직원과 지점장과 함께 공항에서 커피 마시다가, 러시아 항공이 오늘 부산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스런 결정으로 어제 오후 러시아 항공사 블라디보스톡 비행기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부산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음날(13일) 좌석이 만석이 되기에 누군가는 떠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만일 내가 화요일 13일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비자기간이 끝나기에 불법(?)체류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에 가능한 한, 러시아를 벗어나야 했다. 그러던 비행기가 부산 태종대 바다를 30분간 빙빙 돌고 있는 것이다. 무사히 착륙해야지 하면서, 기도 하던 것이 생각난다. 이번에 갑자스런 변경은 주일 저녁부터 예고된 사건이었다.

주일 밤(10일) 10시가 넘어서 성당에서 생활 하던 바오로의 전화를 받았다. 갑자기 성당의 전등이 너무나 밝아지면서, 전구 등이 터져버렸다는 것이다. 난 직감으로 "아이코! 또 다시 터지는가 보다"는 생각과 동시에 바오로에게 성당

의 모든 전원 스위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당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늦은 상태다. 성당 사무실에서는 어딘가로 고압전류가 흘러 전기 제품이 타버린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불이 없는 상태였기에 일단 월요일 아침에 점검하기로 하고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월요일 아침 미사를 마치고, 성당의 모든 전기 제품을 확인하면서, 또 다시 컴퓨터와 모니터2대 기타 전원제품이 전부 고압 전류에 의해 타버렸던 것이다.

이미 일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밤 사이에 강풍으로 인해 성당 주위의 모든 집들이 고전압으로 소등되면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사실 자체 자동 전압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문제다.

출발 5분전까지 몇몇 컴퓨터를 고치고자 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는 상태다. 성당의 인터넷이나 다른 고장나지 않은 컴퓨터를 수리하지 못하고 길을 나섰는데.. 이렇게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그곳을 떠나 지금은 서울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누리고 있다.

☞ 회원 소개-박경옥(모니카) 자매

우수리스크에서

【목 상 1】

가난하다는 것

가난은 돈이 있거나 없는 것, 몸에 이가 있거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참 행복입니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가난은 존재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양식으로서
성령의 선물입니다.

돈 많은 자본가들의 집에 가 보십시오.

그리스도교를 믿는 가정일지라도
이같은 가난의 행복이 결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집집마다 가구와 물건들이 모두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유행과 사치로 결정되며
합당한 필요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의 결핍, 더 나아가 이러한 유행의 종살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단단히
얽어매고 있는 악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유행이라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뜻 합니다.

유행한다는 이유로 덮을 것을 사지 않습니다.
덮을 것이 없으면 내 어린이가
잠자리에서 추위에 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빵, 덮을 것, 식탁, 불,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모두 악마에게서 온다."는
말은 이런 진실에 관한 예수님의 표현을
해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까.
그 '나머지'라는 것이 유행이고 관습이며
사치, 비만, 호화, 속박, 넘쳐남입니다.

어쨌든 이 지극히 감미로운 가난의 참 행복에
갑자기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가난의 참
행복을 실현시키기에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그
래서 우리는 그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돌
아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곧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비유 속의 그 낙타가 우리의 병든
영혼의 녹슨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기적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까를로 까레또의 매일 묵상 중에서

【목 상 2】

꿈은 아름답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 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술한 역경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암울의 시대에 문지기를 자청했던 김구 선생
도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젊고 나약하기만 했던 간디도
인도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귀가 먼 절망의 늪에서도 베토벤은
위대한 교향곡을 꿈꾸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합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도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꿈은 인간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

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
다.

인생의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절망과 고독이 자신을 에워쌀지라도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아름
답습니다.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은 그릇입니다.

노력은 자신의 원대한 꿈을
현실에서 열매 맺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원대한 꿈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밀고 나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먼저 차지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세상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이도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아름다운 꿈을 잘 가꾸고 사
랑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꿈이 있어 나타납니다.

당신은 꿈이 있어 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